

여야 국회 상임위 본격활동 돌입

9월 정기국회 '결전' 앞두고 워밍업

한·민주, 각각 의원 연찬회 가져

국회는 27일 외교통상통일, 기획재정, 행정안전 등 7개 상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

또 오후에는 대법관 임명동의 인사청문 특위를 열어 양상수 대법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의결하고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했다.

이날 오전 개최된 외교통상통일, 행정안전, 교육과학기술, 국토해양, 보건복지 등 5개 상임위의 전체회의는 초반부터 기 싸움이 치열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싱겁게 끝났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상임위에서 덕담을 주고받으며 상견례를 했고 교섭단체 간사를 호선한 뒤 30여분 만에 회의를 마쳤다.

오후 범불교도 대회를 앞두고 여청수 경찰청장 사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안전위나 북한의 갑작스런 핵 실험과 중남 선언으로 현안이 발생한 외교통일통상위에서도 특별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박2일 일정으로 각각 의원 연찬회를 갖고 정기국회 개최를 앞둔 전열을 정비할 예정인 만큼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전투 태세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연찬회에서 정주위 및 상임위별로 현안 및 핵심처리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청와대



27일 김형오 국회의장 주최 18개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마친 각 위원장들이 국회에서 기념촬영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으로부터 하반기 주요 국정과제를 보고받는 등 안정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세를 가다듬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공기업 민영화, 연료 장악음모, 부동산 정책, 서민경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한나라당의 반민주법안 저지에 총력을 펼친다는 결의를 다질 계획이다.

민주당 서갑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숫자의 힘으로 반민주적 법안을 밀어부친다면 국민과 함께 이를 저지할 것"이라며 "이번 워크숍에서 각종 대책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도 29일 대전에서 의원, 당직자 연찬회를 갖고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고, 이회창 총재가 대선과 총선 때 제시한 101가지 공약의 구체적 이행 계획을 점검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성난 佛心'에 불 지핀다

야, '범불교도대회' 계기 대어 공세 강화

야권은 27일 정부의 종교편향 행위에 항의하는 범불교도대회 현장에 참석해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는 등 여권을 향한 공세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민주당에서는 김상희, 박선숙, 안민석, 최문순 의원 등이 참석했고,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진보신당 노회찬, 심상정 상임공동대표도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였다. 창조한국당은 최고위원, 불자 당원들도 집회에 참석했다.

야권은 정부가 불교계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 편향적 자세를 보임으로써 오히려 화만 키웠다고 정부의 처사를 성토했다. 야권이 이처럼 적극적 공세에 나선 것은 여권과 불교계의 갈등이 결국 여권 지지층 이탈

현상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 정치적으로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전략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불교계에서 종교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게 돼 참 안 타깝다"며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통합을 이룩하는 것이지만 이명박 정부는 지난 6개월 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왔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당시 '서울 봉헌' 발언을 시작으로 대통령이 된 후에도 종교적 편향성을 그대로 보여왔으며 이는 하위 공직사회에 그대로 전파됐다"고 비판했으며 민주당

노동당 박승훈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특정종교 편향적 태도는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불교계가 27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범불교대회를 강행하자 허탈해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나름대로 불교계에 공을 들여왔음에도 성난 불심(佛心)을 되돌리는 게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불심 되돌리기가 당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꾸준히 불교계와 접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우선 공직자윤리법에 종교편향을 금지하는 윤리규정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불교문화제 유지보수 예산 확대, '10·27 법안' 특별법 제정을 통한 불교계 명예회복 등 대선공약 이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

민주당 김성곤 의원 개정안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27일 신용카드 회원이 적립한 포인트를 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벌이는 휴먼에코관리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휴먼에코관리재단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회원이 적립한 포인트를 휴먼에코관리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휴먼에코관리재단은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기부받은 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신용카드 회사도 사용기간이 만료돼 소멸된 회원의 포인트를 휴먼에코관리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회원이 포인트를 기부하도록 한다면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경찰, 불교도대회 참가 자제 회유 논란

광주·전남 주요 사찰 방문

27일 서울에서 가진 대규모 '범불교도 대회'에 앞서 광주·전남지역 일선 경찰 간부들이 성난 '불심(佛心)'을 달래기 위해 관내 주요 사찰을 잇달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최병민 광주지방경찰청장은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향림사를, 박봉기 북부경찰서장은 북구 금곡동 원효사를 찾았다. 또 한재숙 장성경찰서장은 고불총림 백암사를, 김창식 보성서장은 대원사를 찾는 등 전남경찰청 일부 경찰서장들도 관내 주요 사찰을 방문했다. 이들은 사찰을 찾아 시주 등을 하거나 여청수 경찰청장에 대해 강한 반발감이 있는 불교계에 대해 경찰 입장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북부경찰서의 경우 원효사 측에 북부경찰서 경승(警僧)을 선임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등 불교계와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교계의 범불교도 대회 참석을 막기 위한 회유 목적이나 참가 자제를 요청하는 방문이 아니었다"면서 "관내 주요 사찰을 방문해 경찰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불교인대대책회의 관계자는 27일 "서울 집회에 참석하는 것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았지만 경찰 간부들이 사찰에 찾아와 집회 참석 자제를 요청하거나 집회 참가자 숫자 등을 물어오기는 했었다"고 말했다. /최원필기자 cki@kwangju.co.kr

내달 인사검증·청문회 격돌 예고

18대 국회 원구성이나 마무리됨에 따라 장관 인사검증 및 감사위원, 대법관 인사청문회 절차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인사검증의 대상은 장재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농식품위),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교과위),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복지위) 등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3개 부처 장관. 각 당이 금

주 워크숍을 실시하는 점을 감안할 때 장관 인사검증은 9월 정기국회 시작 직후인 내달 2~4일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장관 인사검증을 사실상 청문회 수준으로 치르겠다고 버리고 있고 한나라당은 정치공세를 차단한다는 방침이어서 팽팽한 삼바싸움이 예상된다.

장 농식품부 장관 인사검증의 경우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방안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따른 피해산업 대책 등, 전 복지부 장관 인사검증에서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 축소 논란 등이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위원 인사청문회에서는 감사원의 KBS 감사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법관 인사청문 특위는 27일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한다. 야당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위장전입 의혹 등과 함께 현 정부의 지나친 공권력 행사 논란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Daehakpyeonim' (대학편입) by Kim Young. It features the text '대학편입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and 'www.kimyoung.co.kr'. It lists various exam types like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한의대편입/ 의약대편입' and mentions '2009 편입대비 개최'.

Advertisement for SCU Korea. It says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and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It includes contact info: 'www.scukorea.com' and '문의전화 010-6834-6253'.

Advertisement for 'Landkor' (공인중개사). It says '44년 전통!! 본원출신 전국수석 배출!!' and '공인중개사 최종문제풀이 특강'. It lists dates '9월1일' and '9월16일' and contact info 'www.landkor.com'.

Advertisement for 'Mdgosi' (무등고시학원). It says '09년 공무원 시험에 합격이 유력한 개강이 9월1일입니다.' and '공무원 합격 강좌'. It lists exam types like '국가직' and '지방직' and contact info 'www.mdgosi.co.kr'.

Advertisement for 'Landkor' (공인중개사) and 'Mdgosi' (무등고시학원). It says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and '새로운 행정고시학원'. It lists contact info 'www.landkor.com' and 'www.mdgosi.co.kr'.